전쟁기념사업회
나라를 지키는 포럼

제14회 KWO 나지포럼

일시 2026.4.24.(금) 14:00~15:30

장소 전쟁기념관 3F 워리어 라운지

역사로 본 중동 전쟁

주제발표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종합토론
오성대 (前 군사편찬연구소장)
김강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교수)
금철영 (KBS 보도시사본부 국제부 CP)

포럼기획 전쟁기념사업회 W-아카데미
작성책임 서진아 학예연구사 (02-709-3174)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제14회 KWO 나지포럼

역사로 본 중동 전쟁

제14회 KWO 나지포럼

역사로 본 중동 전쟁

일시 : 2026년 4월 24일(금) 14:00~15:30
장소 : 전쟁기념관 3F 워리어 라운지
주최 : 전쟁기념사업회

발표주제와 순서

구분	시간	내 용
등 록	13:30~14:00	등록 및 자료집 배부
개 회	14:00~14:05	【사 회】 서진아 (전쟁기념관 학예연구사)
주제발표	14:05~14:20	【발 제】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종합토론	14:20~15:10	【좌 장】 김낙진 (전쟁기념사업회 사무총장) 【토 론】 오성대 (前 군사편찬연구소장) 김강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교수) 금철영 (KBS 보도시사본부 국제부 CP)
	15:10~15:20	【Q&A】 질의응답
기념촬영	15:20~15:30	기념촬영
폐 회	15:30	폐회선언

〈목 차〉

【주제발표】 역사로 본 중동 전쟁 ▶ 박현도 ……7

【종합토론】

오성대 (前 군사편찬연구소장) ……15
김강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교수) ……19
금철영 (KBS 보도시사본부 국제부 CP) ……21

역사로 본 중동 전쟁

박 현 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이란 전쟁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2:00~4:00
제14회 KWO 나지포럼
박현도(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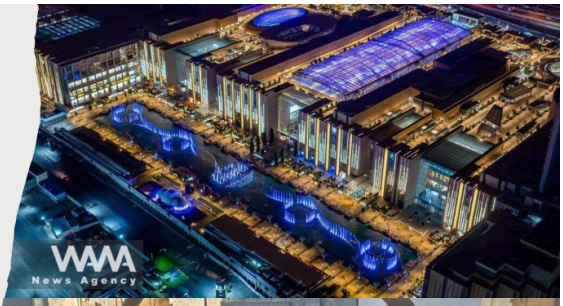






전쟁 배경: 이란시위

- 아얀데은행
  - 이란몰
  - 부정부패
  - 파산: 2025년 10월
- 인플레이션 50%
  - 2025년 10월, 11월
- 환율





환율(이란 리알)

1달러	팔 때	살 때
2026.04.12.	1,589,500	1,588,500
2025.12.28.	1,430,000	1,422,000
2015.07.20.	32,370	32,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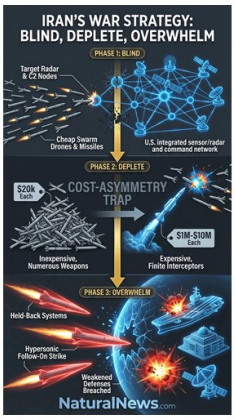
전쟁 배경: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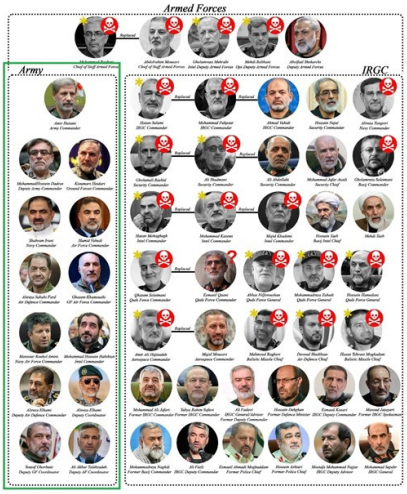
- 트럼프 개인의 오랜 반이란 감정+종교적 상징
  - 45대 대통령: 이사야서 45장 키루스황제
  - 47대 대통령: 47년 이란 신정정치 종식
  - 핵 프로그램 완전 종식
- 네타냐후의 추동
  - 이란을 굴복시킨 역사에 남는 대통령
  - 이란 지도부 제거로 시위대의 정권교체 가능
- 2025.12.29. 트럼프-네타냐후 회동(2025.12.29)
  - 이란 탄도미사일 논의
- 핵, 탄도미사일, 대리세력
- 핵, 시위대 돕기, 탄도미사일
- 에너지, 달러 패권 수호는 직접적 동기가 아님: 부차적으로 파생한 조건일 수는 있지만, 공격의 원인은 아님

전쟁 배경: 이란

- 핵 발전 포기는 고려한 적이 없음.
- 이란의 목표는 일본: 핵무기를 만들 수는 있어도 만들지는 않는 나라
- 자국에서 우라늄 저농축
- 평화적 핵개발
- 하메네이는 핵무기 개발 금지(2003년 파트와)
  - 이란-이라크 전쟁 막바지인 1988년 모흐센 레자이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호메이니에게 이라크 전 승리를 위해서는 350개 보병여단, 탱크 2500대, 대포 3000문, 공격형 헬기 300대, 핵탄두를 장착한 레이저 유도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쟁 중단의 이유가 됨.
- 혁명수비대는 핵개발에 전력: 미국과 핵포기 협상은 불가







전쟁 경과

이란의 반격

- 지휘부 분권화 및 차기 지휘관 미리 선정
- Blind ⇒ Deplete ⇒ Overwhelm
- 양치기 소년 작전 성공: 지역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전쟁 경과

- 이란 정권교체 실패
  - 이란 지도부는 혁명수비대 중심으로 강화
  - 졸가드르, 바히디, 갈리바프
  - 모즈타바 그룹은 메스바흐 야즈디파: 강경노선
  - 혁명수비대는 최고지도자를 옹립하면서 호가호위 능력 배가
  - 이슬람 체제는 크게 변화하지 않되,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큼
  - 중도-개혁세력은 소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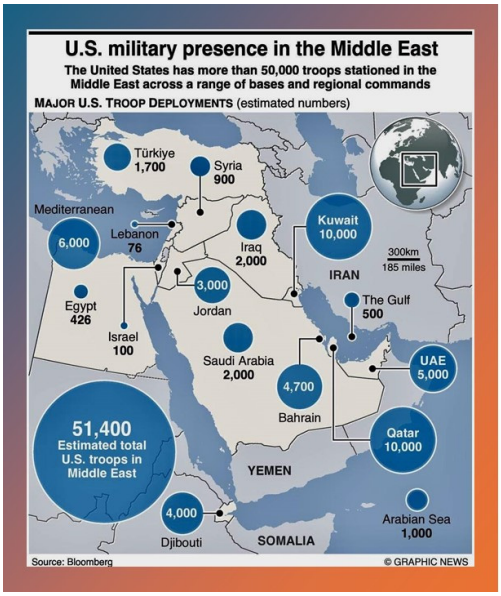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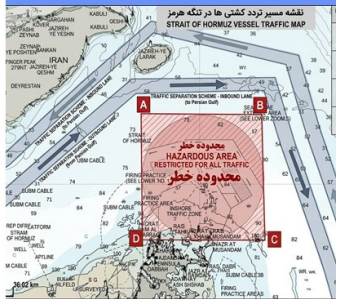
전쟁의 파장: 역내 질서

- 1차 전쟁 후 질서
  - 이란 영향력 반감
    -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여파로 이란의 시아 초승달 붕괴
    - 이란의 영향력 공백을 채우기 위한 경쟁
      - 이스라엘, 튀르키예, 걸프 아랍국
  - 역내 최대 위험국은 이스라엘
    - 2025.9.9.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으로 아랍-이스라엘 관계 악화
      - 사우디아라비아-파키스탄 상호 방위 조약
      -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과 안보 협약
  - 이스라엘은 튀르키예를 새로운 이란으로 위험시
- 2차 전쟁 후 질서
  - 이란-아랍국 간 관계 정립 어려움
  - 아랍-미국 간 관계 긴장: 미국 무기, 미군 기지 논의
  - 러시아, 중국의 중동 내 역할 증가

전쟁과 우리

- 미국의 퇴보 확인
  - 냉전 후 미국 주도 단극 세계 질서 (Unipolar Hegemonic Order)
  - 2017년 이후 다극(Multipolar) 세계 질서
  - "미국은 한 번에 두 개의 전쟁에서 모두 이길 수 없다."
  - 불필요한 전쟁으로 미국의 위신 추락 및 군사력 허점 노출: 우리 안보에 불안 요소로 작용
- 중국의 영향력 상승
  - 중국과 중동에서 경쟁이 더 벅찰 가능성이 있지만, 중동 국가들이 무극화 세계로 가려는 방향성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계를 중요시함.
- 호르무즈 해협: 종전과 함께 정상화 가능성이 높음.
- 대이란 접근법 개선 필요성
  - 혁명수비대와 비선라인 구축
  - 민간 경협을 위한 문화적 접근
  - 대미 굴종적 자세 지양
  - 삼각협력이 어려운 점이 한계: 양자 우선
- 아랍: 방산, 건설 수요 기대





【토론문】

역사로 본 중동 전쟁
—이란 전쟁—

오성대 (前 군사편찬연구소장)

1. 전쟁의 경과

▣ 2.28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기습적인 공격과 함께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 개시 * 이스라엘 : '포효하는 사자' 작전
이란은 걸프 국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단행
※ 이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의 여자초등학교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 3.1 이란 국영 방송에서 하메네이를 포함한 라흐바르 관저 회의에 참석했던 주요 직위자 40여명 사망 발표
미군도 이란의 반격으로 최초 사망자 발생(전사 3명, 중상 5명)

▣ 3.2 쿠웨이트의 오인 사격으로 미군의 F-15E 3대 격추

▣ 3.3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카타르 라스라판의 LNG 시설 피해/생산 중단
이란 분산형 모자이크 방어지침 하달

▣ 3.12 이라크 영공에서 KC-135 공중급유기 1대 추락, 승무원 6명 전원 사망

▣ 3.28 사우디 리야드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이란 미사일, 드론 공격으로 KC-46 공중급유기 1기 파괴/손실, 미군 12명 중상

▣ 4.3 미 공군의 F-15E 격추, 실종된 조종사(2명) 수색작업 개시, 1명 구조

▣ 4.4 실종자 수색작전 간 UH-60 헬기 2대 피격, A-10 공격기 1대 피격/추락

▣ 4.5 실종된 미 조종사 1명 구출, 구출 작전 직후 C-130 2대 포함 다수 항공기 자폭 처리
*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에 욕설 게시
이스파한의 우라늄 탈취작전 실패?

▣ 4.8 2주간 휴전 합의

▣ 4.11~12 1차 종전협상 개시/결렬

▣ 4.13 미국 호르무즈 해협 중심의 해상봉쇄

▣ 4.16 이스라엘과 레바논 10일간 휴전 합의

※ 3.17일 현재 - 이란 군 5,000명 이상 사망, 15,000명 이상의 부상
미군 13명 사망, 200여명의 부상자 발생 (로이터 통신 등)

※ 전쟁개시 첫 100시간 만에 2년 치 생산량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68발 발사, 첫 6일간 113억 달러(약 16조 7천억원)의 전쟁비용 사용 (파이낸셜 타임즈)

2. 이상한 전쟁

▣ 전쟁인가? 군사적 조치인가?

-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정권교체(Regime Change). 그러나 시위대의 봉기도 없었고 이란 정권교체 실패, 오히려 중도·개혁세력이 약화
  ※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전쟁?
- 전쟁목적 변화? 정권교체 → 핵 프로그램 제거
  * 2025년 6월 '미드나잇 해머'작전을 통해 핵시설 타격, 핵 무력화 선언
  ※ 패트로 달러 방어를 위한 에너지 패권 전쟁?

▣ 전쟁 초기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쟁목적 달성을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 실패

- 전자전과 정밀 유도폭격으로 이란의 지휘통신체계 무력화, 방공망/미사일 발사 기지, 군 공항 등 파괴 * 하메네이 등 지도부 40여명 사망
- 이란은 신속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걸프국에 대한 타격으로 전쟁을 미-이란전쟁이 아닌 지역 전쟁화, 세계 경제를 볼모로 미국 압박
  * 미국, 러시아산 원유 구매 한시적 허용

- 드론의 적극적인 운용 및 탄도미사일과 혼합 사용 → 가성비 전투
- 값싼 샤헤드 드론 등 다량 사용, 고가의 패트리어트 등 소진
  * 한국 등에서 사드, 패트리어트 일부 중동으로 전환배치
  * 샤헤드 드론(2만~5만 달러), 패트리어트(400만 달러), 사드(1,200만 달러)
  ※ 드론 잡는 드론 : 우크라이나(Sting, 2,100달러), 영국(Octopus-100, 3,000달러)

※ 미국의 입장에서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한 전쟁? 한편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세계적으로 다시한번 각인시킨 전쟁

3. 질의

이번 전쟁으로 미국이 이란의 '정권교체'라는 최초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반면에 미국의 최초 공습에 이란이 신속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걸프국들에 대응사격을 한 행동은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은 또 다른 차원에서 미국,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현재 미국이나 이란이나 전쟁을 계속 하기에는 서로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미국의 출구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문】

역사로 본 중동 전쟁

김강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교수)

1. 2026년 중동 전쟁 발발의 역사적 배경

- 역사적으로 보면, 2026년 중동 전쟁의 배경에는 길게는 이란 혁명 이후 지속되어 온 미국과 이란 간 반목, 그리고 1979년 체제 자체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음
- 오바마의 이란 핵합의(JCPOA) 체결 이후에도 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합의 탈퇴와 '최대한의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복원 시도 실패, 그리고 트럼프 2기의 강경한 대이란 인식이 누적되면서 갈등이 심화. 특히 핵농축 수준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협상 의제로 포함해야 한다는 이스라엘 강경파의 입장 반영
-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발발이 중요한 전환점.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였고, 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해법을 강화하는 계기
- 트럼프 2기에서 핵협상은 핵농축 허용 범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함 여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다시 실패함

2. 역사 속 중동 전쟁은 신질서 창출의 계기, 2026년 전쟁은?

- 20세기 이후 중동의 주요 전쟁들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전후 지역질서를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음. 예컨대 1956년 수에즈 전쟁은 아랍민족주의 강화와 영불 중심의 제국주의 쇠

퇴를 촉진하였고, 1967년 6일 전쟁은 아랍-이스라엘 갈등을 냉전 경쟁 속으로 본격 편입시키고,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급진화를 가져왔음. 1973년 10월 전쟁은 키신저의 셔틀외교를 통해 미국 주도의 중동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되는 출발점이 되었음

- 이러한 맥락에서 2026년 중동 전쟁 역시 향후 어떠한 중동 질서 변화의 기점이 될 것인지 관심이 큼. 트럼프는 출범 이후 구상해 온 이른바 '신중동(New Middle East)'(저항의 축 약화, 이란 봉쇄, 이스라엘 인정 확대, 잔존 무장세력 해체 등)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이란은 기존의 '저항의 축' 중심 억지 전략에서 벗어나 걸프 지역 보복 전략을 표방하며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들의 안보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음. 이는 향후 걸프 국가들의 안보 전략 및 외교적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
- 동시에 이번 전쟁이 역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강국(미중 등) 경쟁에 미칠 영향도 주목해 보아야 함. 특히 AI 허브로 부상한 걸프 국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헤징 전략(하이브리드 전략)을 유지해 왔고, 데이터센터·디지털 인프라가 안보 표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되었음
- 특히 이번 전쟁은 역사적으로 2003년 발발한 이라크 전쟁에서 드러난 정권교체(regime change)의 한계를 다시 보여주고 있음. 탈냉전기 미국의 중동 전쟁이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약화를 초래했다면, 트럼프 2기의 이번 군사행동 역시 미국의 소프트파워와 국제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토론문】

역사로 본 중동 전쟁

금철영 (KBS 보도시사본부 국제부 CP)

1. 강대국이 규정한 지정학적 공간 'Middle East'

- '중동'이라는 지정학적 규정은 유럽적 관점. 한국에서 보면 '서쪽'
- 영국과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패권 경쟁을 둘러싼 '그레이트 게임'산물
- 1869년 수에즈 운하 개통. 프랑스 외교관 레셉스가 주도
- 1890년: 마한의《해양권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660-1783)》출간
- 1900년대 들어와 마한이 '중동(Middle East)'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 시작
- 1902년 영국 학술지 〈National Review〉 '페르시아만과 국제관계'

2. 중동을 보는 미국 외교정책의 어두운 그림자

- 선과 악의 이분법 '불량국가''악의 축'
- 전쟁 명분 불확실 : 핵무기-〉 정권교체-〉 혁명수비대 제거-〉 핵무기 반출
- 지도자 제거시 민중봉기와 '레짐 체인지' 일어날 것이란 오판
- 중동전쟁 개입때마다 반복돼온 문화에 대한 몰이해
-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폭사로 '시아파 서사'를 오히려 강화시켜
- 이스라엘 로비로부터의 '거리두기' 실패
- 이란전쟁에 드러난 '시스템의 실패'의회통제 붕괴,'지도자 위험 요인'

3. 2026 이란 전쟁, 이전 전쟁과 무엇이 다른가?

- 전쟁의 명문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이상한 전쟁'
- '지도자 변수'에 좌우 미국과 이스라엘 국내정치적 요인 크게 상승
- '구조적 원인'이 어느 때보다 큰 전쟁
- '우크라이나 임팩트'...거대한 국제질서 변화는 이미 시작
- 러·우 전쟁 -> 러시아의 시리아 지원 중단 -> 아사드 정권 붕괴 ->러 방공망 철수-> 시리아 상공 개방->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 직접 공습 ->이란 내부 체제 균열 ->2026년 미·이스라엘-이란 대규모 전쟁 돌입

4. '그림자 전쟁'의 종식과 중동의 재편

- '고립 동맹' 러시아와 이란의 향후 긴밀한 협력 가능성 주시
- 카스피해 연안 5개국의 대응
- '시아파 초승달 지대 세력'의 질적 변화 가능성
- 걸프국가(사우디-UAE-쿠웨이트-바레인-카타르-오만)의 대미 노선 변화와 새로운 연대 모색 가능성

5. 2026 이란 전쟁과 한반도 외교·안보 시사점

-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도전과 기회
- 주한 미군 전력 공백 우려 (사드 체계, 패트리어트 이동)
- 이란-러시아-북한 '고립 동맹의 외연 확대'가능성 대두
- 미 대외정책 우선 순위 결정 과정에서 중동문제 전면 부상 때마다 반복된'대 한반도 정책'의 순위 하락
- 이란 전쟁 개입 정도에 따른 청구서, 추가적인 방위비 요구 가능성
- 이란 전쟁을 북한이 또 다른 핵보유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
- 북한의 대화 거부와 북중러 삼각 연대의 강화 모색 가능성

제14회 KWO 나지포럼

역사로 본 중동 전쟁

발 행 인 김낙진

발 행 일 2026년 4월 24일

발 행 처 전쟁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 02. 709. 3174

편집위원장 서원주

편 집 위 원 서진아, 이재헌, 백연주, 이정선, 강지형

제 작 도서출판 온샘

* 이 자료집의 저작권은 전쟁기념관에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전쟁기념관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The War Memorial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